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ORCHEM

ORchestra
2026 | Vol.22
www.orchem.com



ORchestra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언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발 행 처 (주)오알켄
발 행 일 2026년 10월 1일(통권 제 22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 자 단 ORCHEM(본사) 김성범, 임미연
ORCHEM(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베트남법인) Phùng Thị Thanh Nhân
대 표 전 화 031-488-0600
홈 페이지 www.orchem.com

CONTENTS

01 We are ORCHEM



03 ... 제조센터&품질관리팀 신규 입사자 소개
07 ... 중국법인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09 ... 베트남법인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11 ... 오알켄인 추천 맛집 소개

02 Inside ORCHEM



13 ... 애니어그램 팀빌딩 리뷰
16 ... O!Cafe 리뉴얼
17 ... KPCA Show 2026 스케치
19 ... 베트남법인 3Q 주요 소식

03 ORCHEM-NESS



23 ... 오알켄 창립 35주년 기념식
29 ... 중국법인 조직문화 공간 조성
31 ... 베트남법인 임직원 소통 행사
33 ... 평일 연차 때 즐길거리 추천zip.

04



36 ... O!News / O!Quiz

We are ORCHEM

One Team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MTV 제조팀 김영중 직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저녁 먹고 산책하는 게
최고의 힐링입니다~



MTV 제조팀 박성혁 직원

퇴근 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찬물 샤워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게 최고의 힐링입니다.

Q. 퇴근 후 나에게 주는 최고의 힐링은?

제조센터 & 품질관리팀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제조센터, 품질관리팀에 새로운 분들이 입사했어요!!!

회사에서의 열정적인 모습 뒤에는 각자만의 소중한 휴식 시간이 있을텐데요!
신규 입사자분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MTV 제조팀 박현석 직원

퇴근 길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하나 사서
집에서 먹는 불닭 힐링입니다.

• • • 제조센터 & 품질관리팀 신규 입사자 소개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소확행을 생각해보고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Q. 퇴근 후 나에게 주는 최고의 힐링은?



품질관리팀 김경희 사원

퇴근 후 운동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저만의 힐링입니다.



구미 제조팀 이성진 사원

집 도착 전 발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루루(고양이)를 볼 때입니다.



품질관리팀 곽서린 사원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침대에 누워 이불에 감싸져 있기!

• • • INTERVIEW

MTV 제조팀 | 김영중, 박성혁, 박현석 사원

품질관리팀 | 곽서린, 김경희 사원

구미 제조팀 | 이성진 사원

... 중국법인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董灵锋



李洪涛



창고 재고 관리는 생산 및 출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약품 창고는 품목이 다양하고 기준이 엄격하여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납품 품질과 생산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입사한 신규 직원분들은 약품 분류, 보관, 창고 관리, 출고 라벨 부착, 맞춤형 포장 팔레트 제작, 고객 대응 등 각종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며, 매번 엄정하고 세심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두 신입 사원을 만나 입사 소감과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董灵锋 : 안녕하세요, 董灵锋입니다. 주로 출하 수량, 품명, 로트 번호, 라벨 확인과 최종 출하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洪涛 : 안녕하세요, 李洪涛입니다. 주로 상품 준비, 입고, 적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약품 품목이 매우 다양한데, 빠르게 품목별 특성과 보관 규정 등을 익힐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董灵锋 : 교육 이수 후, 제품 상세 정보 및 출하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확인했습니다.

李洪涛 : 마찬가지로 교육 이수 후, 제품 병세서를 바탕으로 약품의 산, 알칼리 성질을 파악하고 제품 배치 계획에 따라 입고했습니다.

Q. 약품 보관에는 엄격한 규정과 안전 기준이 있을텐데, 진열, 관리, 습기 혹은 손상 방지 등 보관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회사 내 약품 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열 및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ex. 산, 알칼리 구분, 보존 창고 등)

Q. 고객마다 출하 요건이 다른데, 주문 접수 및 재고 준비, 라벨 부착, 상품 확인 단계에서 각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구분하고 실수를 방지하고 계신가요?

각 고객사 출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분류하고 있습니다. (로트 번호, 품목명 다를 경우 기준 간격에 따라 분류)

Q. 화물 운송시 안전 및 상품 보관을 위해 팔레트 포장 및 적재 시 어떤 작업 요령과 기준을 따르고 계신가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레트 점검 > 제품 배치 > 스트랩 감기 > 스트레치 필름 감기.

Q. 직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부서 선배분들이 어떤 도움과 지도를 주셨나요?

董灵锋 : 업무 배치, 지게차 및 작업장 안전 수칙, 동료들과의 소통 등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李洪涛 : 재고 확보, 입고 시 주의사항 및 적재 시 순서와 요령에 대해 지도를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팀과 회사에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董灵锋 :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李洪涛 : 회사의 발전과 함께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 베트남법인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사진.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법인)



ORCHEM VN 재무회계팀 김우재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알캠 비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재 사원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입사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알캠 비나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인연으로 베트남에서 일하게 되셨으며, 오알캠에 입사하게 되셨나요?

베트남은 이전부터 여행으로 자주 방문했던 나라입니다. 여러 번 베트남을 오가면서 현지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여행으로 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생활하면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기업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창구에서 기업의 업무를 바라보는 것보다 직접 기업 안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알캠의 채용공고를 접하게 되었고, 기존의 금융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면서 베트남에서 더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오알캠의 근무 환경과 동료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해외 법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있었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근무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알려주시고, 처음부터 직접 업무를 해보면서 하나씩 익혀갈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면서 여러 부서와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동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 편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입사 첫해에 저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 자금관리와 함께 회계,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달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까지 이해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익숙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재무회계 업무 전반으로 경험의 범위를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해가 끝날 때쯤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 제가 맡은 업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고, '이 업무는 김우재에게 맡겨도 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알캠인 PICK! 찐 맛집... 안산 맛집 대방출

기획/인터뷰: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사진 출처: 북경 / 돼포집 / 정아각 / 값진갈비
명가 노나네 교동짬뽕 / 자연밥상풍경



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8 (회사-식당 : 약 36분)

추천인 코멘트(익명) : XO 소스를 사용하는 중식 요리 지점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XO 소스를 사용하고 상당히 맛있다.

기자 추신 : 추천인의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괜찮은 음식점이라고 하면 맛집이고,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집이다. 나중에 한번 직접 방문해볼 예정이다.



돼포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3
(회사-식당 : 약 25분)

추천인 코멘트(이제건 연구원) : 최근 친한 회사 사람들과 다같이 가서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뼈구이를 먹어봤다. 맛을 보니 잊을 수가 없어서 살면서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메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추천 메뉴 : 뼈구이



정아각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29-2
(회사-식당 : 약 28분)

추천인 코멘트(익명) : 조금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항상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맛있다. 뚝배기에 나오다보니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해독을 위해 꼭 가야하는 식당이다

추천 메뉴 : 얼큰 뚝배기 짬뽕

집밥

익명인의 기숙사 (반달섬 어딘가...)

추천인 코멘트(익명) :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밖에서 사먹는것도 좋지만 집에서 홈마카세를 즐기면서 고된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맛이 있다.

기자 추신 : 혼자 지내면서 여러 음식에 대한 도전과 시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다. 또한 기숙사이다보니 요리하는데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맛있게 먹을 정도라면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추천 메뉴(?) : 민물새우매운탕



값진갈비 정육식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2 (회사-식당 : 약 5분)

추천인 코멘트(익명) : 소고기는 비싸니까 옆 테이블 고기 코로만 음미하고 우리 테이블에서는 육회먹는 곳인데, 육회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음.

기자 추신 : 같이 먹어봤습니다. 육회는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맛있는데 느껴짐



명가 노나네 교동짬뽕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
(회사-식당 : 약 28분)

추천인 코멘트(익명) : 짬뽕 자체가 괜찮은 곳이라서 가볍게 추천해 봄!



자연밥상풍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38 (회사-식당 : 약 26분)

추천인 코멘트(이윤세 연구원) : 맛있는 고기도 좋지만 고기와 함께 채소를 곁들이면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추천 메뉴 : 쌈밥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Together, We Build The Global No.1 Plating Company”
임직원의 행복에서 시작한 이 발걸음이 모두를 위한 눈부신 결과를 세워갈 것입니다.

·
·
·
·
·

공감과 융화, 애니어그램으로 서로의 설명서를 읽다 [분석기술팀편]

글.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지난 5월 말, 우리 분석기술팀은 애니어그램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TI에 이은 또 다른 성격 분석 지표를 접하게 되어 흥미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조금은 조용한(?) 우리 팀 분위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고군분투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오후 반나절동안 졸릴 틈 없이 유쾌하게 흐름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사전에 진행한 성격검사를 기반으로 각자 성향을 구분해 주셨는데, 추가로 나눠주신 유인물에는 좀 더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이 상세히 적혀 있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놀랐습니다. 특히 단순한 성향 구분을 넘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독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 건강을 진심으로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유형이 홀로 동떨어져 있는 분도 있었고, 비슷한 유형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다행히 다수 유형 무리에 속해 있어서 안도하기도 했고 ㅎㅎ 제가 가장 낮게 나온 유형을 메인으로 가진 팀원을 보며 신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평소 팀원들에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던 업무 스타일이나,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들을 강사님이 콕 집어 대변해 주셨던 순간입니다. 간접적으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도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ㅎㅎ

공감과 융화, 에니어그램으로 서로의 설명서를 읽다 [분석기술팀편]

우리는 평일 시간의 30% 이상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거나, 서로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하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갈등의 지점들을 명쾌하게 짚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팀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팀원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스타일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 보완해가며, 팀의 공동 목표에 도달하는 일원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안정, 평화'가 키워드였던 팀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팀원들에게 더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0^

P.S. 이번에 새로 맞이한 후배들과도 시간을 더 쌓은 뒤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분위기 강패,, [O!CAFE 리뉴얼]



오알chem의 자랑~! O!CAFE가 새 단장을 마치고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낡고 다소 차가운 느낌을 주었던 공간을 전면 개선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우드 톤으로 탈바꿈했어요!

한층 더 세련되고 따뜻해진 O!CAFE 매력 포인트 소개합니다.

RENEWAL POINT

1. 우드 벽면과 화이트 로고, 깔끔하고 감각적인 느낌~
2. 우드 마감으로 한층 더 아늑해진 분위기
3. 조명으로 세련미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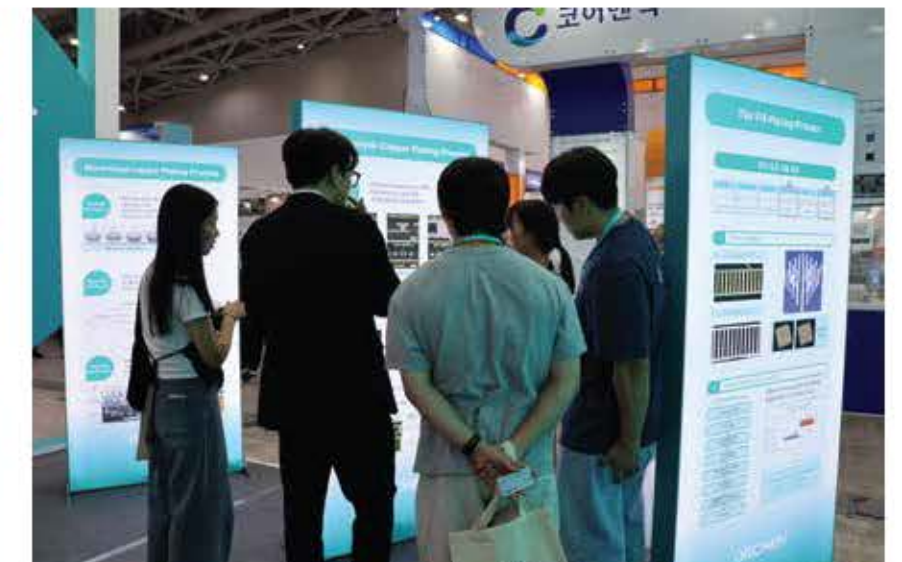


업무 중 휴식이 필요할 땐
O!CAFE로!!



... 2026 KPCA Show 스케치

오알켄이 2026.09.09 ~ 2026.09.11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3회 KPCA Show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초격차·차세대·첨단기술 발표회'를 통해 차세대 유리기판 공정의 핵심 단제로 꼽히는 'TGV 도금 및 Wet Seed Layer 형성 기술'을 소개하며 여러 고객사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활기를 띠었던, KPCA Show 현장 사진 함께 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포털 '오알켄' 검색! 뉴스탭 확인하기!)



베트남법인 3분기 주요 소식

글/사진. 사내 기자단 Phò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법인)

2026.2Q 분기미팅

지난 7월, 오알켄 비나에서 26년 2분기 실적 및 26년 3분기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2분기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의 주요 실적(목표 대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달성률 79%
2. 현지역량강화: 목표 대비 96% 달성

전기 요금 절감 활동

베트남의 여름철, 특히 6~7월에는 기온이 33~38°C까지 오르며, 일부 날에는 39~41°C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C로 조정하고, 동도금 구역의 칠러 및 에어컨 실외기에 차양막과 미스트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전력 절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기동 4호기를 추가로 가동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비나는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동 4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전기동 4호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비·품질 관련 문제 예방 및 납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T/F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T/F Team은 관련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포함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괄 김건범 상무, 민정식 수석, 생산/동도금 박성준 책임, 품질 김주연 책임, 공무 전인환 책임, 현지 설비 엔지니어, 조반장 및 협력사(알루탑, TKC) 합동 구성.

운영 기간 동안 T/F Team은 설비, 지그, 롤러, 체인 텐션, 모터, 펌, 배전반 등 주요 파트와 공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아필 성능 개선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일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야간 및 주말에 발생하는 문제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약 한 달간의 활동을 통해 설비 이상으로 인한 라인 정지 위험을 줄이고, 공정의 안정성과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업무 관리 Checklist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라인을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일상 업무와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T/F Team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주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속적 개선과 이상 발생에 대한 즉각대응을 통해 4호기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라인으로 확대를 통해 전체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알켄 비나법인 동도금 직원들 모두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베트남법인 3분기 주요 소식

한국어 자격증 취득 직원 표창

현재 오알켄 비나는 초급부터 중급까지 다양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3명의 직원이 TOPIK 1, 3명의 직원이 TOPIK 2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초급 1 과정을 수료한 후 TOPIK 2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TOPIK 등급을 한 단계씩 높이고, 특히 TOPIK 3이상을 취득하는 직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전체에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분기 우수 사원 시상

2분기 동안 회사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원 3명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응웬 타이 썬 (Nguyen Thai Son)
: 품질관리팀, 팀원 (공정순회)
- + 응웬 꾸억 비엣 (Nguyen Quoc Viet)
: 공무팀, 팀장 (원가절감)
- + 응웬 반 꾸이엣 (Nguyen Van Quyet)
: 약품제조팀, 현장 (3정5S, 솔선수범)

수상하신 사원 여러분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처럼 빛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켄입니다.



Happy Birthday, ORCHEM! [오알켄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획/인터뷰: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지난 6월 30일, 오알켄의 35번째 창립기념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창립 기념일은 7월 1일이예요)
입사 후 맞이한 세 번째 창립기념일이지만, 매년 다채롭게 변하는 행사 덕분에 늘 내년이 기대되곤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인간 빠칭코'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운 좋게 1만 원 상품권을 받으며 기분 좋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공된 기념 마들렌에는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모습에서 인사총무팀의 엄청난 기획력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먹기가 아까워 고민하다가 옆에 있던 작은 빵을 먼저 맛보았는데, 상당히 맛있어서 이름이 새겨진 마들렌까지 미련 없이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Happy Birthday, ORCHEM



마들렌이 소화가 다 될 때쯤 든든한 점심 특식으로 배를 채운 뒤에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업무가 달라 마주치기 어려웠던 신규 입사자분들의 목소리도 처음 듣고, 취미를 알게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기근속자/조직문화 포상을 보며 회사에 대한 임직원들의 깊은 애사심과 노고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포상



[20년 근속상] 기술품질센터 김건범 상무, 기술혁신팀 지성배 수석, 재무회계팀 윤지영 수석

[15년 근속상] 연구소 조소연

[10년 근속상] 연구소 성희철

[5년 근속상] 연구소 박민지, 영업팀 김민기 선임, 이창대 선임, 재무회계팀 이경민 선임

MTV 제조 원종호 선임, 오근창 기사, 구미제조팀 김민수 선임

특별 공로패



공로패 | 박태열 이충호

IBK 기업은행 표창 | 재무회계팀 안소희 사원

조직문화 포상

사람을 남긴 사람 상 | 인사총무팀 전인환 책임

불링 동호회 활동 중, 점수가 낮아 고민하던 후배 사원에게 두 손가락만 사용하는 '데미스 불링' 기법을 친절하게 전수하여 첫 게임 만에 150점 달성을 이끌어 줌. 활동 종료 후에는 후배의 취미 활동을 독려하며 본인의 아끼던 불링공을 선뜻 선물하여 든든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줌.

베트남 법인 출장 당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 직원 및 한국 주재원들과 벽 없는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함. 업무 외 시간에도 편안한 소통 환경을 먼저 조성하여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원활한 글로벌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벽 망치 상 | MTV 제조팀 원종호 선임

자신을 화려하게 내세우기보다 MTV공장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뒷받침하며 타 부서와의 원활한 화합을 이끔.

묵묵한 기여 상 1 | 구미 제조팀 김상수 직장

오일캠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생산, 공무, 출하 등 생산 전반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임에도,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여 현장을 점검함. 최고참의 직급에도 후배들을 위해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언제나 권위 없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현장 사원들에게 강한 영감과 든든한 신뢰를 줌.

묵묵한 기여 상 2 | 연구소 남민정 연구원

긴박하고 가혹한 야간 근무 환경을 책임감 있게 견뎌냄. 밤낮이 바뀌는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동료들을 먼저 배려하며 동료들의 지친 멘탈을 잡아주고 협업 프로젝트를 헌신적으로 이끔.

아차 상! | 영업팀 김민기 선임

부서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충돌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유연한 태도로 조율을 주도함. 오직 원활한 업무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가며, 조직 내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함.

아차 상! | 연구소 김부연 연구원

잘못된 부분은 엄격하고 날카롭게 짚어주면서도 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다독여주며, 성과가 있을 때는 내 일처럼 크게 칭찬해 줌.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친근하게 팀을 이끌어주며 팀원들이 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

Happy Birthday, ORCHEM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해가 갈수록 물 흐르듯 유연해지는 강형욱 책임님의 진행과 함께 다양한 선물을 두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독 들이던 선물은 놓쳤지만, 잠시 업무를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마음껏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 HAPPY BIRTHDAY



내년 6월 30일의 오알chem은 올해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화려하지만,,, 지금보다 더 화려한 창립기념행사... 기대해 봅니다...

ORCHEM의 문화를 한눈에! 중국법인 곳곳에 담긴 우리 이야기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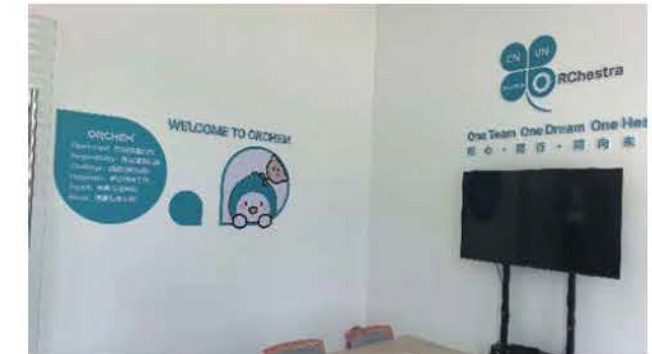
절강성 공장과 심천 창고에는 안전관리, 품질의식, 핵심 가치, 기업 비전 등을 공간 곳곳에 시각화하여 오알켄의 가치와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공장의 생산 현장과 약품 창고를 비롯해 사무공간, 회의실, VIP 접견실, 비즈니스 티룸 등 공간 전반에 오알켄의 비전, 가치들을 담았고, 약품 창고에는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해 위험화학물질의 보관 및 출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생산 현장에는 품질 및 창고관리 현황판을 설치해 표준화된 작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공간과 회의실 벽면에는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슬로건과 핵심가치를 선보이며, 중·베트남 간 협력과 공동 발전의 방향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조직문화 공간 구축을 통해 오알켄의 문화가 생산, 물류, 업무 및 고객 응대 등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도금 기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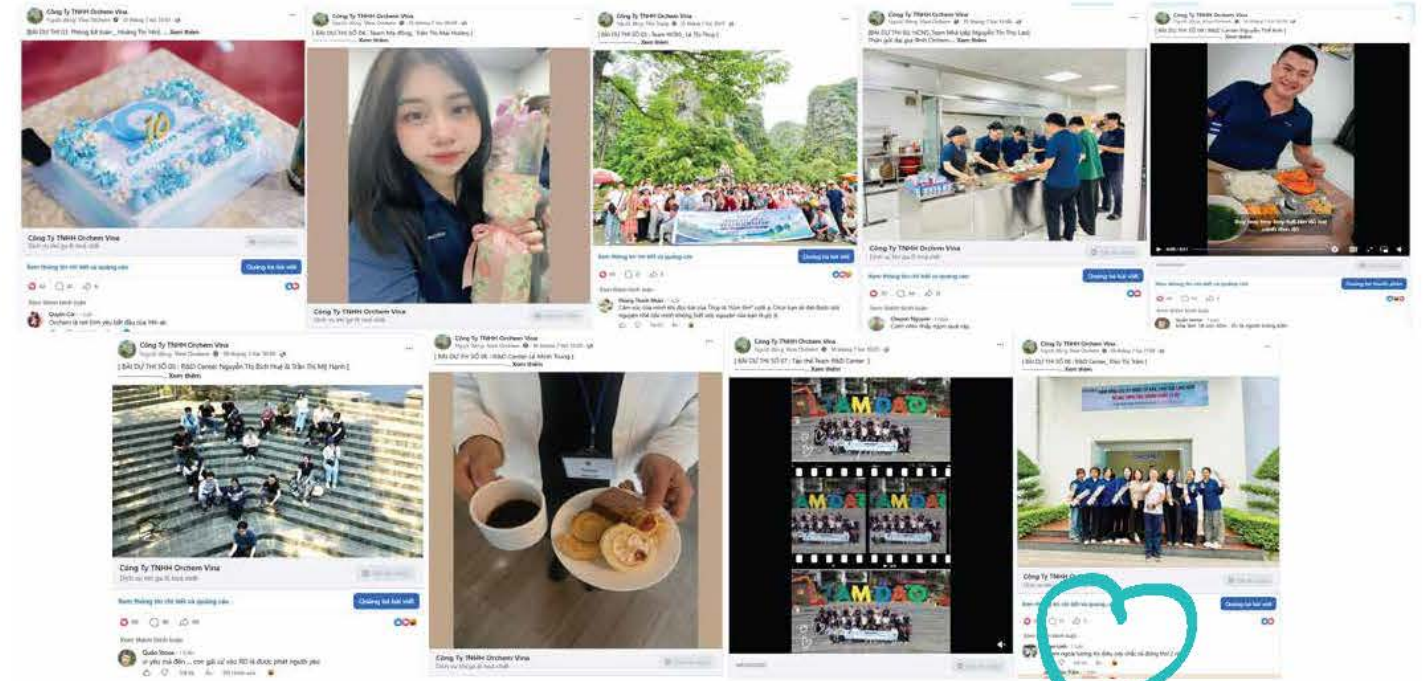


1층 주요 통로에는 비전 보드를 설치해 우리의 목표를 선보였고, "사람 중심, 환경 보존, 미래 지향"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스스로를 뛰어 넘어 매일 한 걸음씩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동시에 VIP 접견실과 신중식 스타일의 비즈니스 티룸을 새롭게 조성해 주요 고객과의 비즈니스 미팅 및 경영진 간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오알켄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알켄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알켄 베트남법인 인사팀에서는 'Check-in Orchem'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알켄에서의 경험과 솔직한 생각,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알켄에서 함께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과 회사에 대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 가운데 회사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2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Check-in ORCHEM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

글/사진.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법인)

우수작2



우수작1

조리사 Nguyễn Thị Thu Lan (란) 사원 우수작 1

조리사 란이라고 합니다. 오알켄에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는 따뜻하고 친근한 근무 환경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밝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리더와, 서로 협력하며 전문성과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오알켄만의 특별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은 제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매일 다양하고 맛있는 식단을 직원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발전하고 더욱 굳건한 오알켄 가족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소중한 여정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되어 준 오알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팀 Lê Minh Trung (똥) 사원 우수작 2

이 사진은 작년 연구소 워크숍 이후 DIC Star 호텔에서 함께했던 티브레이크(Tea Break)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저에게 이 사진은 비나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추억입니다. 바로 배우고, 성장하며, 최고의 전문적인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경영진의 따뜻한 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는 저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비나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연차 내고 집콕 금지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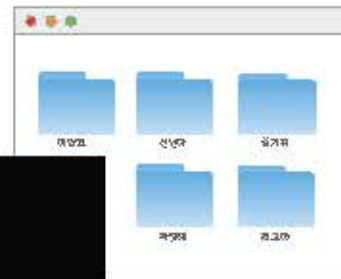
글/사진.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평일 연차에 채워 본 내 취미 기록 z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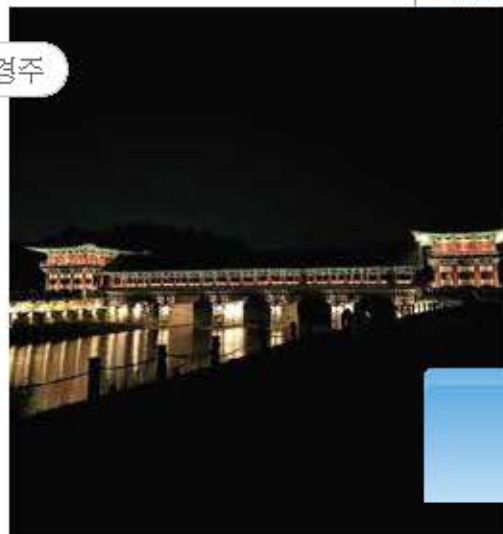
다들 연차 내면 보통 뭐 하시나요? 혹시 침대에서 온종일 스마트폰만 넘겨보다가 "아, 내 귀한 연차 벌써 끝났네..." 하고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연차라고 해서 매번 거창하게 보낼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 나를 위한 하루를 계획해 보고 싶어지곤 합니다. 주말의 복잡함을 피해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씩 골라 즐기기 좋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취미 생활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1. [여행] 여름에만 두 번 다녀온, 한적한 평일 경주 투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벗어나 제대로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 중 가장 좋았던 경주를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거리가 꽤 되는데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지난 여름에만 두 번이나 연차 내고 다녀왔거든요. 주말의 경주는 황리단길부터 주차장까지 사람에 치여서 솔직히 좀 지치지만, 평일의 경주는 놀라울 정도로 한적해요. 낮에는 주말에 엄청난 대기 줄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경주월드와 어트랙션들을 웨이팅 없이 여유롭게 타보기도 하고, 저녁엔 동궁과 월지로 넘어가 조명이 잔잔하게 켜진 야경을 보며 조용히 산책을 즐깁니다. 평일 밤 특유의 고즈넉함 속에서 천천히 걸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참 맑게 정돈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경주



나도 경주 만대



참고로 약력 20kg도 안됐던 제가

크로스핏 덕분에 정말 강해졌어요.^0^

2. [운동] 나만의 타이밍에 즐기는 크로스핏 와드

연차 날이라고 온종일 누워만 있으면 왠지 몸이 더 찌들고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비록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크로스핏 박스를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ㅎㅎ, 주위 분들 말을 들어보면 평일 아침 일찍 가면 저녁보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서 한산하게 운동에 집중하기 딱 좋다고 해요. 만약 아침 일찍 갈 엄두가 안 난다면 저처럼 낮에는 집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충분히 뒹굴거리며 체력을 충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쉬다가 평소처럼 저녁 타임에 박스를 찾으면, 하루 종일 업무와 스트레스에 치이다가 퇴근하고 억지로 갈 때랑은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피곤함이 덜하니까 와드(WOD)를 할 때 텐션도 엄청 잘 오르고 기분 좋은 상태로 운동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연차 날 흘리는 땀방울은 일상에 확실한 활력을 줍니다.

3. [악기] 다들 일할 시간에 드럼 광광

유독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잡생각을 지우려고 시작했던 취미가 바로 드럼이었어요. 평일 연차 날 다들 일할 시간에 동네 음악학원 연습실에 앉아 눈치 보지 않고 온몸으로 악기를 두드렸던 기억은 아직도 최고의 해방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평소에 진짜 좋아하던 최애 플레이 리스트를 틀어놓고 스틱을 가볍게 내리치다 보면 서투러도 정말 신이 났거든요. 온전히 비트에 몰입하다 보면 일하며 쌓인 잔잔한 피로가 시원하게 날아가는 경험을 선물해 준 고마운 취미입니다.



... 연차 내고 집콕 금지XX,
평일 연차에 채워 본 내 취미 기록zip.



4. [SNS] 평일 한정 체험단 뽐개기로 갓생 부캐 키우기

연차 날 그냥 소비하는 하루로 끝내기 아쉬울 땐, 소소하게 일기를 쓰듯 SNS 부캐(부캐릭터) 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맛집이나 뷰티 체험단 마케팅은 보통 주말 제외 '평일 방문' 조건으로만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바로 이때 평일 연차 찬스를 제대로 쓰는 거죠! 주말에는 이용하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체험단 예약을 평일에 여유롭게 잡아서 공짜로 맛집도 가고, 내 일상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까지 챙기다 보면 돈도 아끼고 하루를 엄청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함이 두 배가 됩니다.

주말에 밀린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평일의 여유를 온전히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아껴둔 연차 결재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나만의 즐거운 평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O!News

2026 3분기 오알캠 소식

- 6월 30일 오알캠 창립 35주년 기념식
- 7월 30일 삼성전기 협부회 패키지 솔루션 분과 실무자 교류회 진행
- 9월 9일 ~ 9월 11일 KPCA Show 2026
- PCB 자격증 합격자
KPCA PCB 자격증 중급 과정(SL) 합격자
연구소 박연수 연구원
KPCA PCB 자격증 초급 과정(GL) 합격자
연구소 김승민, 김도형, 김우성, 박재빈, 최진원 연구원

O! Quiz

ORchestra 22호를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에게 제출
해 주세요.

정답자 중 4명 추천, 기프티콘 발송. 오답자 알뜰 없음...

- 연구소 이제건 연구원의 추천 맛집은?
- 연구소 임미연 연구원의 애니어그램 키워드는?
- 오알캠 창립기념일은?
- 인사총무팀 전인환 책임님은 창립기념식 때 무슨 상을 수상하셨나요?
- 3분기 PCB 자격증 합격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